

檢, 황영기씨 등 10여명 추가 출금

〈前 삼성증권 사장〉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3일 압수수색을 끝내고 압수물 분석과 차명계좌 추적을 통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관리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임원들의 컴퓨터 접속기록을 분석 중이며,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전산센터 압수수색은 나흘만인 오늘 오전 끝났다"며 "압수물을 토대로 (삼성측의) 조직적인 비자금 관리가 있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데 최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산센터 압수물을 통해 거래내역을 보려는 것 보다는 특정 임직원들의 컴퓨터 로그인 접속 기록을 살펴보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원의 수나 재직시기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는 "우선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이 가장 긴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전산자료 검토, 그에 따른 계좌추적용 영장 청구 및 자금 추적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목표했던 압수 대상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증권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직원들이 3일 오전 압수 물품을 든 상자를 든 채 서울 수서동 삼성증권 전산센터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압수수색 마무리…비자금 수사 급물살

압수물 분석·차명계좌 조사 "상당한 성과"

은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전해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김 변호사의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일부 의심이 드는 계좌에 대해 소환조사에 나온다고 통보했으며, 삼성측으로부터 '뇌물' 성격의 돈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힌 이용철 변호사를 지난 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출금자에는 김 변호사가 차명계좌

검찰은 또 최근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 10여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차장은 "삼성증권과 전산센터, 삼성SDS e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10여명 인원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금자에는 김 변호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임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던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이 포함됐다. 황씨는 지난주 해외행사 참석자 출국했다가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 주말 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해 소환조사에 나오라고 통보했으며, 삼성측으로부터 '뇌물' 성격의 돈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힌 이용철 변호사를 지난 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에버랜드 재판'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삼성, 행동양식 바꿔야"

권오규 부총리 지적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일 최근 삼성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금산분리를 염격히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MBC·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운영의 틀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기업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투명성, 책임성, 재무 건전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하락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다"면서 "다면 회계공시제도, 사외 이사 등 책임성·투명성과 관련한 제

도적 틀은 개선됐지만 실제 운영이 못委아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제도 개선에 맞게 과거 행동양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행동양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그룹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행동을 고쳐나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 제한제 등의 규제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국내에서는 규제 개혁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출자총액과 수도권 규제 두 요인을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출총제가 대기업이 투자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없으며, 수도권 규제도 상수원 보호를 제외하면 다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문제라기보다는 감성적 측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차명계좌 리스트 없다"

삼성, 언론보도 해명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구조조정본부 대책 시나리오를 입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시나리오가 아닌 감사팀 내부 교육으로 검찰수사가 나왔을 때 대응 및 협조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압수수색 대상 데이터가 4.8테라바이트에 이른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요구한 데이터는 관련 직원들의 내부 시스템 접속 관련 자료로 약 30메가Byte 분량"이라며 "검찰이 일부 받은 영장을 특정 부서 임직원들의 시스템 접속 로그 자료에 국한된 것으로 고객 정보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

"비핵화 이뤄지면 외교관계도 진전"

北 도착 힐 차관보 '핵 신고·불능화' 본격 협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 오전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일보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힐 차관보의 평양 체류기간 조·미 양방은 9·19공동성명에 대한 2단계에서 각 측의 행동조치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힐 차관보 일행은 무력화(불능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영변 핵시설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미국의 입장도 개선되어

기권을 이용해 방북한 힐 차관보를 마중했다.

지난 6월 21~2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 힐 차관보의 방북에는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통역 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5일까지 평양에 머물면서 5㎿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 등 영변 3대 핵시설의 불능화 현장을 둘러보는 한편, 협상 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연내 불능화와 신고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10·3합의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진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탐사선은 화성까지의 거리가 멀어 11개월의 비행을 거쳐 화성에 도착할 예정이며 화성 주위를 돌며 착륙된 광학 카메라와 탐사 설비를 이용해 탐사업무를 수행하고 입체 사진도 전송할 예정이다.

또 중국은 베이징(北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맞춰 내년에 3번째 유인우주선인 선저우(神舟) 7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中, 2009년 화성 탐사선 발사

중국이 2009년 10월께 탐사를 목표로 준비 중인 화성 탐사선의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상하이(上海) 우주항공국(航天局)과 중국과학원 우주센터가 연구개발한 화성 탐사선 '임휘(炎火) 1호'의 모형이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 탐사선의 중량은 110kg이며 수명은 2년으로 설정돼 있다.

개웠다. 이 탐사선의

중고 의전차량 평크·태극기 꽤 뒤죽박죽...

이스라엘 방문 宋 외교 홀대받았다



2일 송민준 장관이 이스라엘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청사 입구에 내걸린 영터리 태극기(乾乾)과 자리에 곤(坤)과(坡)가(坡) 자리에 이(離)과(坡)가(坡) 들어가는 등 4괘의 위치가 뒤죽박죽이다.

한 관계자는 "고속으로 달렸으면 큰 일 낸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스라엘측이 제공한 불보 차량은 외관상으로도 눈에 거슬렸다. 좌측 문 쪽에 굽힌 자국이 있었고, 차량 마크인 'VOLVO'의 V자가 떨어져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송민준 외교통상부 장관이 2일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전 장관에 이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2번째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차례로 방문했다.

송 장관은 2일 이스라엘 카피리나 외무장관과의 오찬 회담을 위해 이스라엘족이 제공한 의전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불상사가 발생했다. 송 장관이 타고 있던 불보 차량의 오른쪽 앞 타이어에 평크가 난 것이다.

운전기사는 저속으로 달리던 상황에서 평크 난 것을 감지해 별 일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 관계자는 "고속으로 달렸으면 큰 일 낸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스라엘측이 제공한 불보 차량은 외관상으로도 눈에 거슬렸다. 좌측 문 쪽에 굽힌 자국이 있었고, 차량 마크인 'VOLVO'의 V자가 떨어져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볼 때 사소하게 넘기기 어려운 실수를 범했다. 외교부 청사 입구에 잘못 만들어진 태극기를 버젓이 게양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태극기는 건(乾)과 자리에 곤(坤)과(坡), 간(坎)과(坡) 자리에 이(離)과(坡) 들어가는 등 4괘의 위치가 뒤죽박죽이었다.

/연합뉴스